

유통

Daily 코멘트 및 뉴스 업데이트

유통 코멘트

롯데마트, 매장면적, 상품수 감소 본격화 <https://bit.ly/2zjL2gf>

- 롯데마트, 매장면적, 상품수 감소를 통한 구조조정 본격화
- 올해 21개점, 내년 20개점의 1) 매장 면적 축소 (35만평→25만평) 2) 상품 수 감소 (4.5만개→3.5만개) 진행하여 구조조정 진행
- 공간 축소를 통해 판매 공간을 줄여 그 공간을 1) 물량화와 2) 온라인 물류 강화에 활용할 계획
- 이미 물량화를 진행한 잠실점(리뉴얼 후 스케이트장 설치)의 객수는 11.4% 증가
- 롯데마트는 연내 8개 매장을 온라인 거점 매장으로 리뉴얼 계획
-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의 활용도 제고는 긍정적이라 판단. 향후 오프라인 매장 활용도가 높아졌을 경우 1)효율적인 온라인 배송과 2) 객수 증대를 통한 외형 회복이 가능할 것
- 롯데, 이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의 경쟁력은 1) 오프라인 인프라와 2) 다각화된 유통 채널임
- 전통 유통사 추가 및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1) 오프라인 인프라(매장) 수익성 하락과 2)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 부재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 때문
- 1) 적자 점포를 구조조정(혹은 매각)하고 2) 오프라인 활용도를 높일 경우 영업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회복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

전일 주요 뉴스

- 올리브영, 위챗페이 결제서비스 도입 <https://bit.ly/2NvsNgk>
- 싱가포르 창이 1~4터미널 담배 주류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(매출 5,000억원 규모, 내년 9월~26.8월까지) 에 롯데/신라 최종 참여 <https://bit.ly/2ZwLvKS>
- 썬페이스,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8억원 투자 유치. 썬페이스는 뷰티버(뷰티+유투버)의 메이크업 동영상 개별 사용자에게 맞게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<https://bit.ly/2ZwElg1>
- 마켓컬리, 1) 8월 현재 일주문건수 3~4마만건(vs 18.8월 1만건) 2) 회원수 200만명. 내년 11월 김포에 2.7만평 규모의 복합 물류센터 오픈 예정 <https://bit.ly/2KVZBgY>
- MBK 파트너스, 홈플러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2조원 규모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마케팅 작업 추척 후 본격 돌입 <https://bit.ly/2KXqst2>

① 현대백화점 (전일주가 -2.12%)

- 김포아울렛, 증축 후 1년간 1,400만명(55% YoY) 방문. 18년 매출 4200억원, 19년F 4700억원(12%YoY), 20년F 5,000억원(6%YoY) 예상 <https://bit.ly/320y9nK>

미래에셋대우 유통 커버리지

종목명	티커	투자 의견	목표주가	주가	시가총액 (십억원)	성과(%)				
						1W	1M	3M	YTD	1Y
롯데쇼핑	023530	Trading buy	220,000	131,000	3,734	4.8	-8.0	-15.9	-37.4	-26.7
이마트	139480	매수	190,000	115,500	3,220	4.5	-8.7	-19.2	-36.7	-45.1
신세계	004170	매수	360,000	226,000	2,161	-0.5	-18.7	-24.3	-14.3	-30.0
롯데하이마트	071840	Trading buy	42,000	31,650	718	-2.4	-18.4	-29.3	-34.8	-57.2
현대백화점	069960	매수	95,000	71,400	1,624	-2.4	-8.4	-18.8	-23.2	-30.0
GS리테일	007070	매수	48,000	39,300	2,926	-5.6	-0.8	7.3	-6.2	2.8
BGF리테일	282330	매수	262,000	196,500	3,439	-4.3	-1.2	0.5	-2.5	25.2

주: 2019.8.26일 기준, 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

이름	티커	시가총액		수익률					P/E(X)		P/B(X)		ROE(%)	
		Local	USDmn	1W	1M	3M	YTD	1Y	19F	20F	19F	20F	19F	20F
롯데쇼핑	023530 KS	3,734	3,072	4.8	-8.0	-15.9	-37.4	-26.7	13	11.9	0.3	0.3	2.4	2.5
이마트	139480 KS	3,220	2,649	4.5	-8.7	-19.2	-36.7	-45.1	14.9	11.6	0.4	0.4	2.7	3.3
신세계	004170 KS	2,161	1,778	-0.5	-18.7	-24.3	-14.3	-30.0	4.4	8.0	0.5	0.5	18.2	6.3
롯데하이마트	071840 KS	718	590	-2.4	-18.4	-29.3	-34.8	-57.2	7.8	7.3	0.3	0.3	4.4	4.6
현대백화점	069960 KS	1,624	1,336	-2.4	-8.4	-18.8	-23.2	-30.0	7.6	6.7	0.4	0.3	5.1	5.6
GS리테일	007070 KS	2,926	2,407	-5.6	-0.8	7.3	-6.2	2.8	19.7	16.6	1.3	1.2	6.9	7.7
BGF리테일	282330 KS	3,439	2,829	-4.3	-1.2	0.5	-2.5	25.2	20.7	18.3	5.4	4.4	28.7	26.5
GS홈쇼핑	028150 KS	1,013	834	-1.5	-9.4	-7.7	-14.0	-23.6	8.2	7.9	0.9	0.8	10.7	10.2
현대홈쇼핑	057050 KS	1,111	914	-3.4	-2.7	-0.9	-6.5	-17.7	7.6	7.0	0.6	0.6	8.6	8.6
Walmart	WMT US	316,389	316,389	-2.6	-1.9	7.9	19.0	16.7	22.5	21.7	4.2	4.0	18.8	18.8
Kroger	KR US	18,604	18,604	1.3	8.4	-1.8	-15.3	-25.4	10.7	10.1	1.9	1.7	20.8	17.8
Costco	COST US	120,507	120,507	-0.6	-2.6	10.8	34.5	18.5	33.5	32.0	8.1	7.2	25.6	23.7
Target	TGT US	52,918	52,918	19.5	18.9	26.9	56.6	18.5	16.8	15.8	4.4	4.1	27.0	26.8
Macy's	M US	4,615	4,615	-7.4	-34.7	-28.9	-49.8	-59.1	5.3	5.8	0.7	0.7	13.2	11.0
Bestbuy	BBY US	17,681	17,681	-0.1	-14.8	0.4	25.0	-19.3	11.6	11.1	4.9	4.7	43.9	42.7
Nordstrom	JWN US	4,425	4,425	9.5	-6.3	-14.7	-38.7	-54.0	8.6	8.3	5.9	7.5	54.0	60.9
Ocado	OCDO LN	8,376	10,276	-0.3	-3.2	0.0	51.9	11.2	-	-	12.8	15.4	-17.8	-10.7
Isetan Mitsukoshi	3099 JP	300	2,837	-2.8	-13.3	-16.7	-37.6	-39.0	21.0	15.7	0.5	0.5	2.5	3.1
Takashimaya	8233 JP	211	1,992	-4.7	-5.6	-1.2	-15.6	-35.9	10.6	11.1	0.4	0.4	4.7	4.2
Seven & I holdings	3382 JP	3,235	30,590	-3.7	-2.4	-3.9	-23.7	-19.8	15.1	13.7	1.2	1.2	8.3	8.7
Familymart	8028 JP	1,224	11,571	1.4	-0.5	-16.8	-30.6	-4.0	24.1	23.0	2.0	1.9	8.7	8.4
Lawson	2651 JP	535	5,056	-3.3	-0.6	2.3	-23.3	-21.4	28.7	20.8	1.9	1.9	6.7	9.0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신세계, GS리테일, 롯데쇼핑, 이마트(을)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(LP)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